제334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9. 4. 15 (1)

예수부활 대축일

기도서 P. 278 B해
제1독서(사 도 10 : 34a 37-43)
제2독서(골로 3:1-4(고린I 5, 6-8)
복음(요한 20, 1-9(마르 16, 1-8)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1979년 부활교서

부활과 교회 그리고 하느님나라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1.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I 고린토 15 : 14)라고 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같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비단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신앙만이 헛된 것일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무의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세상에 사실 때, 교회를 세우신 바가 없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에 단 두 구절(마태오 16 : 18과 18 : 17) 나오지만, 그것도 주석학자들간에 무엇을 뜻하냐에 의견이 분분하거니와, 그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교회 건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외에 신약성서에서 자주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항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자렛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분의 영광중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차츰 한데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 출현(出現)의 발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현**(敎會出現)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하나의 자연 발생적인 **집회의 현상**(集會現象)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특히 교회의 자연 발생적인 출현 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신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이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의주도한 의도(意圖)하에서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회의 근원**은 예수·그리스도 사건 전체에서, 즉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 활동, 그리고 특히 제자 선택에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 및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성령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예수·그리스도 생애 전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로 비롯된 교회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예수·그리스도 생애 전체에서부터 설명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헌장**은 무엇인가?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한 마르코복음 서두(1 : 15)의 이 간결한 말씀은 예수·그리스도의 온 가르침의 집약이며, 동시에 **교회신앙의 대헌장**(敎會信仰의 大憲章)인 「**하느님 나라**」의 선포인 것이다.

부활을 입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이 「**하느님 나라**」—다른 표현으로 **하느님의 지배**—를 바라고, 증언하며 선포(宣布)하고, 그것을 외치고 알리며(傳令) 또한 온전히 거기에 봉사(奉仕)하는 바로 그것이다.

2.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나라를 **죄인들을 위한 구원사건**으로 설교하신다.

이에,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죄인들의 교회」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결코 티없는 거룩한 존재로만 행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는 판단하고 단죄할 것이 아니라 고쳐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 자신이 죄인들로 구성되고, 죄인들을 위한 존재임을 아는 교회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과연, 우리에게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루가 14 : 11)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 자신의 최고 권능의 행사**로 설교하신다.

이에,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신뢰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가 아무리 큰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

숲정이 산책

느님 나라를 세우려 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느님 지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 뿐이다

자신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는 흩어지고 붕괴하는 교회다. 그렇다, 교회가 굳이 스스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교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교회는 신앙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과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 놓을 수 있다」(마르코 11 : 23)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나라를 **순수한 종교적 지배**로서 설교하신다.

이에,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봉사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종의 모습으로 인간을 섬겨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겨 인간을 섬기는 봉사의 자세를 취한다.

자신이 인간과 세상을 위한 존재임을 망각하는 교회는 스스로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잃는다. 그렇다, 교회가 굳이 세속 권력을 그 힘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기력해지고 만다. 그러나 교회의 힘이 십자가와 섬김에 있다면, 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되고, 작기 때문에 참으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연, 우리에게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마태오 20 : 26)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3.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이기에 자칫하면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同一時) 할 위험이 크다.

교회와 하느님 나라를 동일시하기 쉬운 까닭은, 하느님 지배란 아무리 미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현재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현재의 발전하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생각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하느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중간시기를 순례(巡禮)하는 어떤 잠정적인 것인 반면에, 하느님 나라는 모든 시대의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확정적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것이요 미래에는 지양(止揚)될 것인 반면에, 하느님 나라는 현재에 돌입해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결정적으로 미래의 것이다.

교회는 죄인과 의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반면에, 하느님 나라는 의인과 성인들의 나라다.

교회는 가변적인 요소를 지닌 현세적인 조직으로서 요컨대 인간의 일인 반면에, 하느님 나라는 위로부터 돌입하고, 즉각적인 활동이며, 측량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요컨대 하느님의 일이다.

복음에서의 겨자씨의 비유(마태오 13 : 31~32), 누룩의 비유(마태오 13 : 33), 혼인잔치의 비유(루가 14 : 15~24)등 수많은 비유들이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다.

창조의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이며,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교회와 세계의 구별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완성된 우주적 하느님의 지배**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명칭이 그대로 어울린다

4.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전조(前兆)다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아닐뿐 아니라, 또한 결정적인 하느님 지배의 **전단계**(前段階)도 아니다. 그러나 가히 그 **전조**(前兆)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미 예수·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지배라는 실재(實在)의 **표징**(表徵)이요, 아직 미래의 일인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전조**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의미의 교회는 교회 자체에, 교회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있다.

그렇다고,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교회는 그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순례도상의 교회는 하느님에게서 버려진 채 그저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상 끝날 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계셔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마태오 8 : 20), 그때까지 교회는 주님 즉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교회는 항상 하느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린다. 아니, 그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며, 전령으로서 세상에 그 나라를 선포한다.

물론 하느님 지배의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직 훗날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된 것은 이미 옛날의 일이다

물론 교회는 아직 죽음의 그늘 아래 헤매고 있지만 장차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 사실이된 부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장차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자체도 끝날 교회이지만, 은연중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회는 이미 **선포된 말씀**과 **세례**를 통하여 낡은 인간을 무덤에 묻고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하여 **하느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

교회는 이미 **성찬의 잔치**로써 종말의 잔치를 내다보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사랑의 잔치**를 계속한다.

교회는 이미 주어진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가치인 **진리**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펴고 있다.

이렇게 다가올 **하느님 지배의 능력**(能力)은 이미 교회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고 있으며, 은연중에 교회는 동터오는 하느님 지배에 벌써 참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교회는 가히 하느님 나라의 상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느님의백 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르코 1 : 15)

축 부 활!!!

하얀 토끼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위원회

폭력과 억압을 뿌리뽑자!

—김수환 추기경 부활절 멧시지

김수환 추기경은 부활 대축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불멸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죽음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인간 세계를 갈라놓은 모든 분열(分裂)의 담을 헐고 불의(不義)와 부정(不正), 폭력(暴力)과 억압(抑壓), 불평등(不平等)과 차별(差別)의 뿌리를 뽑자"고 호소했다.

김추기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예속에서 풀어주시고 신부재(神不在)의 물질적 비인간화(物質的 非人間化)에서 우리를 구원, 참된 인간으로 재생시키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에서—

노풍 피해 보상 촉구!!

—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와 정평위(正平委)

가톨릭 농민회 전북지부 연합회와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노풍 피해보상 촉구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9일에는 임실 본당에서, 또한 4월 9일에는 고산 본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노풍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4월 9일에 발표된 성명서에 의하면, 노풍 피해는 "농민들의 영농관리의 잘못"도 아닐 뿐더러 "본의아닌 천재"의 탓도 아니라고 주장한 가톨릭 농민회와 정평위는 "신품종(노풍)에 대한 기후조건 실험을 충분히 해냈는지부터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군이래에 없었던 보상"은 "납득할 수 없는 조사기준"과 "일부 특혜" 보상으로 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농촌문제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무시한 저곡가 정책"과 "품종개량을 통한 물량확보에만 급급하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못자리판을 짓밟는 강제행정"을 지적했다.

이 모두는 진정한 국민총화를 해칠 뿐더러, 농민의 아픔이 바로 하느님의 아픔이기에 피해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하기로 다짐한 가톨릭 농민회와 정평위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행정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각 본당에 배부된 「피해실태 조사 보고서」, 「성명서」, 「결의문」 참조바람)

사진재료·사진기계·도산매
태 광 사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카메라 대여 DP&E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주단·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 진 상 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히얀 토끼 봉헌의 날 !

1. 지도 신부 임명(79. 4. 9 일자)
   ※ 정승현 (前 J.O.C. 지도) ◦박중신(前 성령쇄신 운동 지도) 신부의 군종입대(4월 14일)로 새로 지도 신부를 임명함
   ①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 전주교구 지도신부…김영신(창인동 본당 주임신부 겸)
   ② 성령 쇄신 운동 전주교구 지도신부…왕수해(장수 본당 주임신부 겸)
2.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부활절 미사 방영…16일〈월〉 오후 9시40분, K.B.S T.V에서
3.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9일〈목〉 오후 8시, 가톨릭센타
   ① 주제…프레그머티즘의 문제점 ② 강사…박도식 신부(광주 대전신학대학 교수, 철학박사, 문학박사)
4. 방지거 3회 수련회…21일〈토〉~22일〈일〉
5. 교리교사 연합회 대의원회…22일〈일〉11시~3시 덕진성당(전북대 입구) 참가비 없음
6. 앰네스티(국제사면) 전주지부 인권 강연회…23일〈월〉 오후8시, 가톨릭센타

□ 숲정이 편집실 전화놓기 성금, 감사합니다…전매청 성화회 24,060원, 고산 본당 장경암 10,000원

■ 이재후 신부 부친 이규범(안드레아, 71세)씨, 4월12일 새벽 선종…기도합시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축! 부활을 축하합니다
2. 성모회 : 15일〈일〉 공식 미사후
3. 사제 양성 후원 저금통 가져 오세요
4. 판공성사 안보신 분은 미사 전후로 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12,75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중 신
사도 회장 김 성 룩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 18일〈수〉 저녁 8시
3. 환영, 수녀님들 모임 : 본당 수녀님들 윤수녀님과 송수녀님의 부임을 환영합니다
4. 대학생회 임원개편 : 회장—최광식, 부회장—정방숙 총무부—최충식·은혜숙, 성화부—박병호·김은경 섭외부—이강원·오정자, 교리부—전병구·조숙희

□ 지난주 봉헌금 : 87,322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감사합니다
   사단장병 위문에 협조해 주신 본당 교우님들
2. 기증 : 화분 4개—현복철, 제대초—장윤옥 할머니
   제대꽃—황현묘
3. 축하합니다(축! 영세)
   공식 미사후, 영세자 환영식(많은 기도와 협조를…)
4. 아직 판공성사를 못보신분은 금주내 성사를 보세요
5. 화단 정화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박봉린씨 가족에 감사합니다
6. 학생미사 변경 : 토요일 5시 30→일요일 오전 9시로 22일부터 변경합니다
7. 사제양성 후원 토끼 저금통 봉헌해 주시기 바람. 22일까지
8. 혼배를 원하시는 분은 1개월전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4,260원 교무금 : 121,29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오늘은 부활 대축일
2. 부활 계란 판매 : 학생회(많은 협조 바람)
3. 예비신자모집 : 예비자 안내 서약서 받아가시기 바람
4. 영세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20명)
   첫 영성체 : 18명
5. 학생회 춘계 소풍 : 4월 29일(신리 수원지)
6. 반회장 회의 : 15일 저녁 미사후
   한분도 빠짐없는 출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0,1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축! 부활 :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2. 부녀주일 : 10시 미사후
3. 판공성사 : 미사 전후에
4. 수요 기도회 : 18일 밤 8시

□ 지난주 봉헌금 : 74,12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예수부활 대축일·성모회 월례회
2. 축! 첫 영성체식 : 오늘 9시
3. 9일 기도 : 4월 5~13일 많은 신자 참석 바랍니다
4. 성당 신축 설계도 도착 하였음 : 기성회 회합 있음 기성회 임원·사도회 임원·구역장·반장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73,5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종

※ 사순절 운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자모회 : 10시 미사후
2. 꼬미시움 : 오후 1시 30분
3. 사제양성 후원 토끼 봉헌 : 다음주 까지
4. 판공성사 안보신 분은 미사 전후로 이용 바람

※ 사순절 사랑의 희생헌금 총액 : 301,987원

□ 지난주 봉헌금 : 205,766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축! 부활
우리 본당이 이곳에 세워진지 벌써 1년이 되었읍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본당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고 있읍니다.
예수님 만세! 파티마 성당 만세!

1. 전주 파티마 신용조합 : 5월 1일부터 업무 개시
   장소 : 효자동 삼거리 신흥공업사 건물, 전화 ②2519
   ※ 교육 : 19일—저녁 7시 30분, 22일—공식 미사후 24일—결성식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젊은 여성의 모임 : 20일〈금〉 저녁 7시 30분
   기혼, 미혼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325원

* 인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2 7■2

교회와 사회에 보내는 정평위 백서

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1979년 부활주간에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1. 교회의 시대감각
2. 정치 분야
3. 경제 분야
4. 사회 분야
5. 인권 분야

* 이 백서에 인용된 교회 문헌들

〔활동〕—— 평화를 위한 정의의 활동, 교황 바오로 6세 연설, 로마 「보이스 타운」에서, 1972. 1. 1.

〔부름〕—— 행동에의 부름, 「레룸 노바룸」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서한, 1971. 5. 14.

〔사목〕——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1965. 12. 7.

〔어머니〕—— 어머니와 교사, 교황 요한 23세 교서, 1961. 5. 15.

〔민족〕—— 민족들의 발전 추진에 관하여, 교황 바오로 6세 교서, 1967. 3. 26.

〔지상〕—— 지상(地上)의 평화, 교황 요한 23세 교서. 1963. 4. 11.

〔인권〕—— 인권과 화해, 세계 주교 시노드를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메시지, 1974. 10. 23.

1. 교회의 시대감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개념은 〈하느님의 백성〉, 〈일치성사(一致聖事)의 상징〉,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상징〉이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의 대표적 징후를 알아야 한다〉는 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회의 고유한 시대감각, 가난한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와 주려는 의욕과 관심에서 솟아오르는 시대감각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교회는 여러 세기를 통한 체험에서 힘을 얻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현 상황이 요구하는 대담한 창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부름 42)

이와같은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의 한국이 처한 사회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내면에서 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표면의 상황은 얼핏 보기에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겉 보기와 속 사정이 다르다는 미묘한 현실을 교회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거짓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폭력, 억압, 공포, 약점의 악용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강요된 질서, 그것이 참된 질서인가? 사회적 참상도 진정한 질서인가? 고칠 수 없고 속수무책인 가난도 참된 질서인가?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빈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도 참된 질서인가? 수치스러운 부도덕, 사회선을 손상시키는 방종에 관해 무관심한 상황도 참된 질서인가? 합리적인 법이 없는 곳, 법이 준수되지 않는 곳에도 참된 질서가 있는가? 외관상으로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공동선, 합법적 자유, 빈곤한 계층의 향상이 방해받는거짓 질서가 있다.〉 (활동 5)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소요가 없이 평온해 보이며, 사회적으로 일부 시민들의 향락 풍조가 있다고 해서 이 나라에 참된 질서,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일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는 이 사회에서 지체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79년 2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참석한 중남미 주교회의 때 남미 주교단 대표 아른스 추기경은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를 방어하는 것보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교회는 보호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정말로 한 백성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주일 미사에 나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러한 각성은 현대 세계의 모든 지역 교회에 나타나 있다.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도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한국사회 각 분야의 현실을 정의로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 분야

〈정치 분야로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요청이기도 하다. 즉 책임과 결정의 보다 광범한 분담을 뜻하는 것이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의 개념이 성숙하고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한 세계를 예견하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더 잘 깨달을수록 정치 참여의 정당한 소망은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교황 요한 23세는 교서 「어머니와 교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소망이며, 자유의 구체적 행사이며, 자아 발전의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름 47)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 자유의 행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경쟁하여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 여건에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공권력(公權力), 즉 정권은 다른 여러 민주주의 나라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교대로 국민에게 봉사함으로써 국민적 지혜를 고루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1978년 7월 6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에는 현 집권당인 공화당 후보 1인만이 출마하여 99.9%의 득표율로써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선거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인데, 한국의 4, 5개 정당이 있으면서 대통령 입후보자를 한 정당에서만 내고, 다른 정당들은 모두 정당으로서의 궁극적 임무를 기피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이 참여 단계에부터 비정상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뒤이어서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그리고 현행 헌법과 국회법으로 인해, 실제 의사당에 와서는 신민당이 3분의 1에 약간 미달하는 의석수를 차

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제10대 국회 개원 벽두에 신민당 원내총무에 의해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비판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다시 국회의장 선거 방법에 있어 〈퇴장〉이라는 반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여당에 의해 강요받고 거기에 절충식으로 굴복하여 반대 의사 표시의 자유마저 상실했다는 특이한 사례를 남겼다.

앞에서 인용된 요한 23세 교황의 교서 내용 중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소망이며, 자아 발전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질 기회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을 때, 그 국민의 자아 발전의 길 또한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79년 연초에 한 일간 신문이 실시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 청장년 세대의 과반수가 이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아 발전의 좌절감에 연관이 없을지 숙고할 문제이다.

3. 경제 분야

〈교회는 사도직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 가운데로 사제들을 파견하여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함께 감수하며 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제 나(교황 바오로 6세)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서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민족들의 발전」 교서에서도 이미 행동을 시작하라고 강조했었다. 평신도들은 현세적 질서의 쇄신이 자신들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부름 48)

〈서민들은 비인간적 생활 조건의 희생물이 되어 양심이 어두워지고 가족제도마저 해를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합숙생활은 가족적 친근감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신혼 부부는 적당한 가격의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실망하고 만다. 어린이들은 너무도 협소한 제 집을 뛰쳐 나와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의 보상 방법을 취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감독해 줄 사람이 없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무거운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부름 11)

교회가 경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처럼 오직 인간을 위해서이다. 이른바 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국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도시산업선교회 등 크리스찬 노동운동 단체들이 때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까지 모함을 받기도 하지만, 하느님 백성 전부를 사랑해야 할 교회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힘 없는 근로 서민 대중에게 내리 사랑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가 일반 경제구조 자체를 문제삼을 때에도 산업화 또는 물질화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의 목적은 즉 〈생산의 기본 목적은 생산품의 증가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지배권력을 위한 데에 있지 않고 그 목적은 오직 인간에 대한 봉사에 있는 것이다.〉 (사목 64)

경제 분야에서 인간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불행은 으레 도시 근로자 및 농민을 비롯한 서민 대중의 생활에 나타난다.

한국은 1978년에 국민총생산고(GNP)가 1인당 1,000 달라선에 올라선 고도의 경제성장 국가라고 하는데, 이해 3월 말에 정부 당국이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근로자 총인원 7백93만 명 중 76.7%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 수준(과세점)인 월급 5만원선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이와같은 과세점 기준은 5인 가족을 거느린 근로자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니 76.7%인 5백44만1천 명의 근로자 가족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므로 이들은 국민될 자격 중 한 가지를 상실하고 사는 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포함해도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총수는 전체 근로자의 88.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88.6%에 달하는 근로자의 가족 인원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 한국 근로대중의 90% 선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격심한 저임금으로 인해 불행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1979년에 넘어와서 정부의 경제기획원은 국민에게 경제 시책을 밝혔는데, 그 내용에는 한국의 근로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참아 주어야겠다는 요청이 들어 있었다. 그 요청의 이유로는 국제 무역경쟁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 가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시책 발표가 있고나서 2월 14일 정부 노동청은 「근로자 최저임금제」 폐지를 발표하였다. 이 최저 임금제는 1976년에 2만원 선으로 시작하여 1978년까지 3만원선으로 실시해 오던 최저한의 근로자 임금보호 제도였다. 당국의 말에 의하면 근로자 월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업체도 최저 임금제를 핑계로 올리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반면에 3만원 미달의 월급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 점에 더 큰 우려가 간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월급 인상을 위한 행정지도 노력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니 불필요하게 최저임금제만 폐지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최저임금제」는 원래 교회의 대사회 교서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 근로 대중의 극심한 저임 실태가 국가의 경

제 생산구조 안에서 과연 부득이한 일인지에 관해서는 오히려 반대 자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행 조사월보」(1979년 2월호)가 밝힌 바에 의하면 〈임금 인상에 의한 공업생산품 가격 인상 압력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흡수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보다 통화 증가 억제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다면 앞에서 경제기획원이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참아 달라고 한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노동이 지니는 가치와 그 노동에 대한 보수 문제는 교회가 사회현실 문제 중 가장 중요시하는 대상이다.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노동은 경제 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다. 다른 요소들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연물에 자기의 모습을 새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는 데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목 67)

〈노동의 보수는 상업 시장의 법칙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누구 멋대로의 결정에 맡겨질 일이 절대로 아니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가족에 대해 품위 있게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머니 71)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자본주의가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의 결정적 불행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데서 선언되는 최선의 충고인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증가는 인명경시 풍조와 관련하여 지나쳐 볼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에서 1년에 노동자 14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10배의 높은 재해율이라고 노동청 조사가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대책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민은 창조의 장엄한 전당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농사의 가능성이 무진장하고 그 법칙이 변하지 않고, 조물주의 안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 주는 동식물의 생명에 접촉하면서, 인류의 영양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공업에 필요한 수많은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어머니 144)

농촌에서의 삶이 이처럼 값지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농촌 인구는 날로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시절에는 전체국민의 70~80%를 차지하던 농민이 1979년에는 32% 선으로 헤아려지고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를 향해 이동하는 현상은 이른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인 점도 있다. 농민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대되어 간다.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서는 농촌 사람들이 답답하고 보람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새 세대가 지니는 호기심과 모험심,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매력, 도시 생활의 여러 방편과 시설을 향락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인구 이동의 의심 없는 한 가지 이유로는 농업 노동이 생산수지를 맞추지 못하여 그곳에서의 생활이 불우한 점이 틀림 없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있다.〉 (어머니 124)

이 점도 세계적인 한 추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농촌이 날로 피폐하게 된 데에는 농민에게 봉사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계속 부정부패에 빠져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들에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비료가 외국에서 수입될 때 값을 몇 배로 비싸게 속여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막대한 규모로 농민대중을 착취한 사건으로 제1공화국 때의 「중석불 사건」과 제3공화국 때의 「백승빈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농민 상대의 부정 사건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78년 4월에 한국 가톨릭농민회가 전남 광주에서 성토 집회를 열고 가두 시위에 진출함으로써 뒤늦게 정부 감사원이 조사 발표한 「함평 고구마 부정사건」이 그 첫 예이다. 농협이 전남 함평을 비롯하여 중부 이남 지방의 광범한 지역에서 수매를 약속하고 고구마 재배를 시켜 놓고 가을 수확 후에는 농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겨, 고구마 수매 자금 80억원을 부정 유용한 사건이다. 고구마를 뜻밖에 팔지 못하게 되고 보관할 방법이 없어 썩혀 버린 농민들에게 보상된 액수는 겨우 3백만원, 나머지 농민 피해액은 미해결로 끝났다.

1979년 3월에는 검찰이 농협의 또 새로운 부정사건을 수사 발표했는데 농협이 매년 영농자금 명목의 대부를 해 주면서 수억원대의 커미션을 받은 부정을 저질렀는데, 시·군 조합 단위에서도 월 7백만원, 그 이하의 지소 단위에서는 월 70만원 상당의 돈이 간부들에 의해 계속 유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3월에 치안본부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수입 고추 부정사건」 수사를 밝혔다. 지난 해 가을 김장철에 한국 역사에 없던 고추 부족 파동이 폭발하여 정부 농어촌개발공사가 1만2천여 톤의 외국산 고추를 수입한 일이 있다. 농개공은 고추 수입의 필요 여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썩은 고추 수입, 초과수입, 수입상인과의 결탁, 비밀판매 착복 등 갖은 부정을 저질러 거대한 액수의 금품 부정이 있었음은 물론, 도시 서민의 가정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한편 농민들로서는 고소득 농산물인 고추·마늘·양파 등이 당국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대량 수입됨으로써 예년의 이계통 농작물의 경작이 생산수지를 가늠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막심한 소득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정부 농수산부가 직접 지휘하여 신종 벼 「노풍」 파종을 강력히 권장한 결과는 농작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보상에 나섰으나 보상 과정에서 또다시 대폭적인 부정이 발생, 이의 시정을 위해 고역을 치르고 있다. 즉 잘못 보상해 준 쌀 3만 2천여 가마를 회수하고 다른 농민에게 2만 5천여 가마를 보상하며, 취로사업비도 35억을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농정 부조리가 행해지는 동안, 막상 추진되었어야 할 농촌 경제의 생산구조 개혁은 막연한 채로 정체되어 있다. 즉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라는 추세를 감안하여 농사의 기계화와 거기에 선행되는 경지정리야말로 농업 근대화 시책의 핵심이라 하겠는데 이 부면의 성과는 막연한 실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농 인구는 1977년에 47만여 명이었는데 1978년에는 78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 농촌의 일손이 심하게 부족하여 하루 일군 품삯이 4~5천원에서부터 8천원에까지 이르러 있고, 한창 농번기에는 1만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현실에서 영농비 지출은 생산 소득액을 넘어서게 되며, 더구기 비기업적 영세 농민은 더욱 경작이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도시로 떠난 농민들이 맡겨놓고 간 토지들을 그대로 묵힐 수 밖에 없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농 현상은 산간 벽지에서까지 일어나, 하락한 값으로 땅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이와같이 오늘의 한국 농촌 경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면에서 파탄에 직면할 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에 비해 정부가 수년래 주도해 온 「새마을 운동」은 부분 지역 또는 특정 부락에서 자조근로에 의한 소득증대 효과를 올려 미담의 소재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농로 개척, 지붕 개량, 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며 전시효과적인 성격을 띠어, 기본 구조면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수지의 파탄, 여기에 따른 이농 현상의 증대 등 농촌의 피폐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에 의존되어 왔다. 수출로써 나라를 세운다는 뜻의 이른바 「수출입국」 과 〈수출 100억 달라 달성〉이라는 목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 왔다.

현대 세계에 있어서 〈자유주의 통상 원칙〉이란 것에 관해서도 교회는 국제간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자유주의 통상원칙만으로써는 이제 국제관계를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거래하는 쌍방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균형잡혀 있을 때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미 공업화된 국가들은 자유통상 원칙을 정의로운 법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 다른 나라로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시장에서 자유로이 형성된 가격은 불공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민족 58)

과연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남북 문제, 즉 선진 세계권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빈부격차 문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낳는 것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분석 비판되고 있다.

한국의 대외 수출도 물량의 거대한 순환이란 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심각한 무역 역조 현상을 겪어 왔다. 정부 상공부 발표에 의하면 대일 무역 역조는 1978년에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즉 일본과의 무역 역조가 32억 9천만 달라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1977년에 비해 90.6%나 증대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한국측 적자 총액이 9억 달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주력하지만 강대국들과의 자유통상은 일본과의 경우처럼 힘이 들고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7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가 중동에 진출하게 된 것이 큰 혜택이었다. 수출 100억 달라 달성도 이 여건에 힘입은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1978년과 '79년에 걸쳐 신진 재벌급 수출회사 셋이 파산 내지 파탄에 이르렀다. 이것은 제세산업·원기업·율산실업이다. 이 중에서도 율산실업이 3년 간에 걸쳐 급성장을 하고나서 반사회 악덕기업이란 지탄을 받으며 파탄 지경에 이른 사건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실성을 드러낸 큰 치부로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율산실업은 자본금 1백만원으로 회사를 시작하여 3년 동안에 은행 돈을 빌어 쓴 누계가 2조 3천억원에 이른 후 재산을 1만 배로 불려 1백억원 자본의 재벌회사로 성장하고 1979년 3월에

은행 부채 1천 5백 23억원을 남긴 채 부도를 수습 못해 일단 파탄에 봉착하였다. 앞에 든 신진 재벌 회사들이 급성장한 내막을 보면, 극악의 경우 외국 바이어들과 공모하여 돌멩이 등을 상품인양 위장 포장하여 수출품으로 배에 싣고 선적증을 떼어 은행에 가서 수출지원 금융을 대부받고, 해외에 도착한 상품들은 해외 지사 창고에서 현지 금융을 받아내는 근거로 삼는 등 갖은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결과였다. 위 3개 회사의 불실운영은 수출 100억 달라를 달성했다는 실질 내용에 회의를 갖게 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을 쌓은 은행들이 30대의 한 청년 실업가에게 누계 2조원이 넘는 대부를 해 준 데서 졸속, 특혜, 특권, 기업 파탄, 재산 해외 반출 혐의 등, 한국 경제 분야의 전형적 부조리가 보인다.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는 소수의 기업인들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는 재산을 해외에 유출시키는 사례들이 일어난다. 기업들의 재산 해외 반출은 종종 물의를 빚어 왔으나 1979년 4월에 체임으로 노동쟁의를 초래한 「와이에치 회사」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3백만 달라의 거대한 재산을 해외에 반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조국의 자원과 국민의 노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명백히 조국에 손실을 초래하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만을 위해 국외에 반출시켜 축적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민족 24)

이러한 일련의 부조리한 경제 현실은 국가 안에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시정이 시급하다. 〈사유 재산권의 자연적인 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써 만족할 수 없으며, 전사회 계층들 사이에 부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 113)

이러한 정의로운 원리가 경제문제 해결의 궁극적 대안이다. 졸속 성장과 부정 부패, 부조리를 벗어나 민생 위주, 인간에의 봉사에 경제 시책이 정착되는 것만이 국민의 복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4. 사회 분야

현대 세계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 중의 한 가지는 이른바 「사회화」 현상이다. 〈개인의 인격 향상과 사회의 발전은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회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과 주체와 목적은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된다.〉(사목 25)

사회 속의 인간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니기를 요청받는데 이것은 자연법적 규범이다. 예를 들면 인간에 생존할 권리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결합되어 있고, 윤택한 생활을 할 권리는 품위를 지킬 의무와 결합되어 있고, 진리를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는 더욱 완전하고 광범하게 진리를 연구할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지상 22)

사회 안에서 인간의 의무는 진리에 따라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에페소 4 : 25) 성경에서 바울로 사도가 한 말씀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거짓이 시정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로 되어 있다. 먼저 정치사회에서의 예를 보면 공직자들의 모든 부정행위가 곧 거짓에 연유하는 것이다. 1978년 6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 의해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1978년 1·4분기에 정부기관 안에서의 부정사건이 2만6천 건으로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2년 전의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 3천8백 건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그 규모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1945년의 8·15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신혁명 운동이 있어 옴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사회에서 오히려 부정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으로서 배금주의, 이기주의, 허영, 사치, 퇴폐의 사회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허영과 사치의 표본인 화장품을 비롯한 외국 상품들을 선망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특허청은 1979년 1월 중순경에 전국 6개 도시에 걸쳐 외제 상품 판매 실태를 조사했는데 159 개 업체에서 외제 상표만 도용해 붙인 가짜 외제품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이것이 국내에 유통되는 외제품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실정임을 밝혀냈다.

어린이들의 대표적 소지품으로서는 장난감을 들 수 있는데, 1979년 3월 한국부인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장난감의 절반 이상이 저질 무허가 제품이며, 일반 어린이들의 79%가 이 장난감들로 인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일반 생활필수품의 시중 유통 과정에서는 상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매점매석으로 모리행위를 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1979년 3월에 경찰이 이틀 동안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서서 전국 상점의 창고에서 적발해낸 위법 사례는 278 건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물품 출고 조절로 품질 또는 가격 인

상의 농간이 무수히 저질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이러한 비도덕적 풍조는 오늘날 한국의 국민정신이 사회질서를 위한 의무감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거짓과 조작과 사리사욕 풍조의 범람은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을 만연시켜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가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폐단은 언론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서 더욱 조장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미 1977년에 「해방 후 30년간 한국 언론에 가해진 법적규제의 변천」을 조사한 바 있는데, 현재 언론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률 및 조치령으로서 개정 국가보안법, 반공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헌법 등이 있다. 이 많은 법률들은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기능에 지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저변 분위기는 가치의 순위 의식과 명랑성을 실현하는 데에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나쳐 볼 수 없는 문제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독자성을 잃고 어용화됨으로써 본래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의 개선 없이는 또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인권 분야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79년 1월 「평화의 날」 주일에 지난 해 「12월 27일의 사면조치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학인, 교수,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근로자, 학생들이 아직도 투옥되어 있는 사태가 타개되어야 한다. 대사면과 화해의 정신에 합당하게 양심수인들에 대한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석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인간을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원리 제시에 입각하여 언론과 입법 등 사회 기본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개선 조치가 취해지기를 그 성명은 촉구하였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김지하 · 양성우 · 장기표 등 시인과 소설가 송기숙 등 문학인들, 문익환, 박형규, 윤반웅, 조화순 등 개신교 목사들, 성내운, 이영희 등 대학교수들, 언론인으로 동아일보 전 기자 10 명, 정치인으로 통일당 청년 간부들, 근로자로서 동일방직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여공들, 이 밖에 긴급조치 위반자인 여러 명의 학생들이 투옥되어 있다.

대학 재학 중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사회적으로 원한에 찬 부랑자가 되는 청년들의 숫자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으며, 이 현상도 국가의 앞날을 위해 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사회 안에서 화해와 인권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구체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의 대열에 자유롭게 책임있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반대 의사 표시의 자유 뿐 아니라 정보 및 언론에 자유롭고 접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 의해 체포되고 고문받거나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고 가톨릭 교회는 강조하고 있다. (인권 11)

이러한 교회의 정신에 합당하게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기본 인권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양심수인들이 해방되어 국민 안에 화해와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다.

이 소망에 따라 우리의 진리 실천, 정의 실천에 참고하기 위해 이 현실 조사가 수행되었다.

오늘의 우리 조국 현실에서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와 통일과 평화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가호를 빈다.

1979년 부활주간에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